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9월 6일(금) 행사시작(12:3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9. 6. / (총 6매)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과 장	박 재 찬	전 화	044-202-2550
담 당 자	김 웅 년		044-202-2560

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 개최 (9.6) -
- 새로운 닥터헬기를 통해 24시간 운항·구조활동 병행 등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31일(토)부터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하였고, 9월 6일(금)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닥터헬기 운용 지역) 인천(길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 그간 정부는 일곱 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경기도(아주대학교병원)를 선정(‘18.5월)하였고, 응급환자에게 더 빠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닥터헬기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해왔다.

□ 새로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 기존에 운영되던 6개 지역의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간(일출~일몰)에만 운항하였으나, 새로운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에 운항하는 방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안전성) 야간에 고압선 등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아 헬기 운항의 위험성 존재,
(효율성) 교통체증이 없는 야간시간에 구급차 대비 닥터헬기 활용의 효율성 검토

□ 또한,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구조활동을 병행한다.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에서 실족으로 추락한 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닥터헬기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활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하여 출동하게 된다.

* 소방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로 파견되어 24시간 출동 대기

□ 일곱 번째 닥터헬기는 기존 기종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로 도입하였다.

○ 야간에 발생하는 대형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항거리가 838km에 이르고 응급환자를 한 번에 6명 이상 이송할 수 있는 헬기(H225)를 우선 도입하였다.

○ 향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리온으로 교체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의료장비를 추가하여 응급처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의무후송전용헬기(국방부), 제주소방헬기를 기존에 생산·제공하였음

<우선 도입되는 헬기(H225)>



<향후 도입 예정인 헬기(수리온)>



- 한편, 새로운 닥터헬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6일(금)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출범식에는 새로운 닥터헬기의 출범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또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다니엘 크리스천(Daniel Christian) 미8군 부사령관, 라울 코임브라(Raul Coimbra) 전 미국외상학회 회장 등도 함께하였다.
- 2011년 9월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2019년 8월 말까지 약 9,000번 출동하여 누적환자 8,300여 명을 이송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존 닥터헬기 배치 현황 >

배치 지역	배치 병원	운항 개시
인천광역시	가천대길병원	2011. 9.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3. 7.
경상북도	안동병원	
충청남도	단국대학교병원	2016. 1.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2016. 6.

- 지난 7월 15일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하여 정부부처의 다양한 행정목적의 헬기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주요내용 >

- (출동체계) 응급환자 항공이송의 출동체계를 소방본부로 일원화, 운항정보 공유
- (이착륙장) 기관간 이착륙장 현황을 공유, 착륙시 상호(119, 경찰 등) 협조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새롭게 운용을 시작하는 닥터헬기를 통해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24시간 365일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닥터헬기의 안전한 운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 붙임 > 1. 닥터헬기 사업 개요
2. 닥터헬기 기종별 특징 및 운항 실적

붙임 1

닥터헬기 사업 개요

□ 운용 개요

- (개념) 전문의가 탑승·출동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날아다니는 응급실”)
- (운용범위) 배치병원 반경 100km(소형헬기)~350km(대형헬기)
 - * 헬기 착륙을 위하여 사전 약속된 장소에서 환자 인계
- (운영시간) 365일 주간(일출 ~ 일몰), 일부 시범사업 지역은 **24시간**
- (운영방식) 민간 헬기사업자와 리스계약을 통해 헬기 운영 위탁
 - * 소형 30억 원, 중형 40억 원, 대형 70억 원 운영비(국비 70%, 지방비 30% 매칭)
- (배치현황) 현재까지 7개 지역 배치
 - *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경기(아주대병원)

□ 출동체계

- ① 환자 119 신고* → 119구급대원 출동 → 구급대원이 직접 혹은 119상황실을 통해 헬기 요청
 - * 병원 간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헬기 요청
- ② 각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서 신고접수 및 출동여부 결정(기상 및 환자상태 확인)하여 현장 출동
- ③ 도착 및 현장치료 → 이송 간 치료 및 병원에 사전 준비 지시
- ④ 응급수술 등 병원치료

붙임 2

닥터헬기 기종별 특징 및 운항 실적

○ 닥터헬기 기종별 특징

구분	AW-109(소형)	AW-169(중형)	H225(대형)
형상			
운항방법	쌍발엔진	쌍발엔진	쌍발엔진
길이(m)	13.0	14.65	19.50
높이(m)	3.5	4.56	4.97
날개 길이(m)	11	12.12	16.2
최대이륙중량(kg)	2,850	4,600	11,000
최대속력(km/h)	285	268	324
최대운항거리(km)	400	500	838

○ 닥터헬기 출동실적('19.8월 기준)

구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계	~ '16	'17	'18	'19.8월	계	~ '16	'17	'18	'19.8월
합계	8,959	4,266	1,670	1,774	1,249	8,343	3,953	1,554	1,669	1,167
인천	1,257	709	209	201	138	1,171	661	195	188	127
전남	2,049	1,111	334	362	242	1,881	1,018	310	335	218
강원	1,490	841	228	219	202	1,360	771	202	199	188
경북	2,260	1,290	366	349	255	2,110	1,197	342	329	242
충남	1,146	242	310	349	245	1,101	237	297	334	233
전북	757	73	223	294	167	720	69	208	284	159